

# 가계빚, 소득比 빨리 쌓인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162.7%

취약차주 부채 86.8조 전년 대비 4.1조 증가

가계빚 증가세가 둔화했지만 여전히 소득보다 빠르게 쌓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빚의 질도 악화되고 있어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28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 상황(2019년 3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부채(가계 신용 기준)는 1534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8% 늘었다. 지난 2018년(5.7%)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가계소득 증가율(3.9%)보다는 여전히 높았다.

이에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말 162.7%로 전년말(159.8%)보다 2.9%p 상승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같은 기간 83.8%에서 86.1%로 올라갔다. 두 수치 모두 가계빚 증가세와 맞물려 매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차주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LTI)도 지난해말 기준 217.1%로 지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빚이 빠르게 늘고 있는 사이 부

채의 질은 나빠진 모습이다. 소득 대비 부채 비중이 비교적 적은 LTI 100% 미만 차주 비중은 지난해 50.4%로 전년(51.5%)보다 줄어든 반면 부채 부담이 크게 높은 LTI 300% 이상 차주 비중이 21.1%에서 21.9%로 상승했다.

연체율도 비은행에서 지난해말 1.55%로 전년 대비 0.17%p 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 자영업자와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은행 연체율은 0.26%로 전년(0.23%) 수준과 비슷했다.

가계빚의 약한 고리인 취약차주의 부채규모는 전년 대비 4조1000억원 늘어난 86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취약차주는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7~10등급)인 차주를 말한다. 지난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취약차주의 대출 중 비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64.8%로 전년

(66.4%)보다 더 내려갔다. 비은행 대출금리가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르면 직격탄을 맞을 우려도 커진다. 권역별로 상호금융(25.2%), 여전사(15.9%), 대부업(8.5%) 등의 순서로 높았다.

이들 대출의 신용대출 실패도 여전했다. 취약차주의 신용대출 비중은 지난해 41.7%로 전년보다 0.1%p 하락했으나 비취약차주 수준(23.7%)에 비해서는 2배 정도 높았다.

다만 지난해 취약차주 수는 146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1000명 감소했다. 이들의 상환 능력이 개선된 차원이라기보다는 정부의 장기연체자에 대한 지원 등이 작용한 영향으로 풀이됐다.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저신용 차주의 대출규모도 12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000억원 줄었다.

가계부채가 주요국에 비해 이미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한은은 "앞으로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겠으나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을 제약하는 주요 취약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내외의 여건 악화 시 취약차주의 채무상환 어려움이 커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 에어드레서 블랙에디션 출시 삼성전자가 리퓨팅기기 '에어드레서' 블랙에디션 모델 2종을 28일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한 '에어드레서' 블랙에디션은 '크리스탈미러'와 '다크블랙'이다.

## 치킨집 88%는 '나홀로 사장'...넷 중 하나 '억대' 대출

통계청, 치킨집 27.2%는 대출잔액 1억원 이상...非은행권 가계대출 많아

자영업자라 하면 흔히 떠올리는 치킨집의 87.8%는 직원을 두지 않고 홀로 운영하는 1인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8일 통계청이 발간한 계간지 'KOSTAT 통계플러스 불호'에 실린 '공공 및 신용 빅데이터 연계로 본 주요 음식점 부채 분석결과' 보고서의 내용이다. 음식점업은 특별한 기술 없이 뛰어들 수 있어 소위 '준비되지 못한 창업'과 폐업이 빈번한 업종으로 알려져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중에서도 치킨집은 지난 2016년을 기준으로 음식점업 중 가장 1인 사업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킨집 다음

으로는 분식·김밥집(84.7%), 한식(78%), 중식(71.3%), 제과점(60.6%) 순이었다. 종업원 없는 1인 사업자가 훨씬 높은 비(非)은행권에서 돈을 빌렸다. 분식·김밥집은 68.1% 수준이었다.

한편 치킨집의 2016년 기준 평균 매출액은 1억1400만원이었다. 분식·김밥집은 8400만원 수준에 그쳤다.

다른 음식점 중에서는 제과점이 1억8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식(1억2400만원), 중식(1억600만원) 순이었다. 한식과 제과점의 경우 평균 종사자수도 3.2명으로 치킨이나 분식집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다.

이들의 대출을 보다 세부적으로 보면, 가계대출을 받은 치킨집 사업자들 중 69.2%는 은행권보다 금리가 훨씬 높은 비(非)은행권에서 돈을 빌렸다. 분식·김밥집은 68.1% 수준이었다.

한편 치킨집의 2016년 기준 평균 매출액은 1억1400만원이었다. 분식·김밥집은 8400만원 수준에 그쳤다.

다른 음식점 중에서는 제과점이 1억8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식(1억2400만원), 중식(1억600만원) 순이었다. 한식과 제과점의 경우 평균 종사자수도 3.2명으로 치킨이나 분식집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다.

## 2월 유통업체 매출, 전년比 0.4% ↓...설 명절 날짜 영향

지난달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온라인이 증가한 반면에 오프라인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0.4% 감소했다.

오프라인 매출은 7.1% 줄었다. 이는 설 명절 시점 차이 때문이다. 지난해 설날은 2월16일이었으나 올해 설날은 2월5일로서 선물세트 수요가 1월에 집중돼 대형마트 매출이 크게 감소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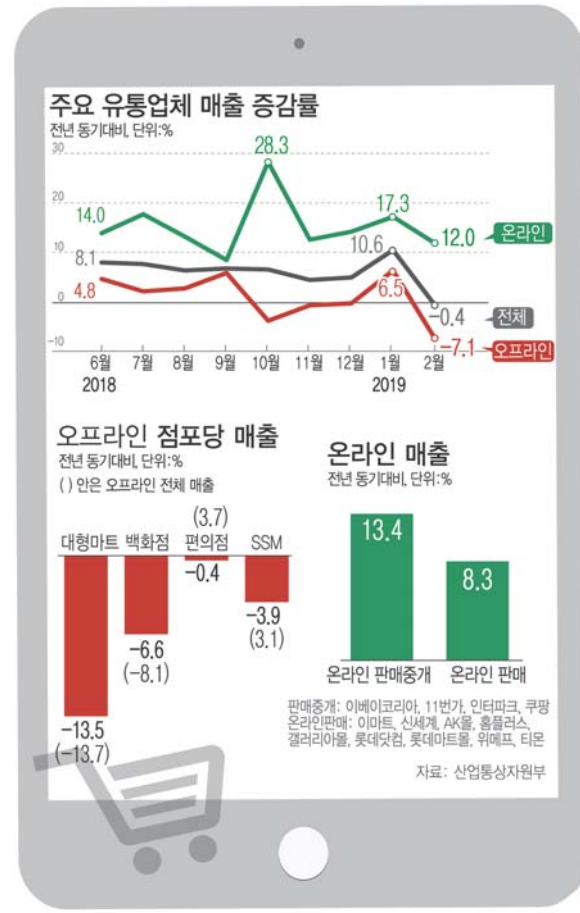
다만 온라인 매출은 12.0% 늘었다. 미세먼지로 인한 관련 상품 판매 증가와 함께 신학기 사무가전 특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편의점(3.7%)을 제외하고 대형마트(-13.7%)를 중심으로 기업형수퍼마켓(SSM, -3.1%), 백화점(-8.1%) 등 모든 업체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감소했다.

편의점은 점포수 증가(4.1%), 편의점 취급 의약품 수요증가로 인한 담배 등 기타의 성장(3.3%), 수입액주·간편식 등의 수요증대로 식품군 매출이 4.3% 상승해 전체 매출이 3.7% 늘어났다.

SSM은 전년보다 빠른 명절철사의 영향으로 선물세트 수요가 1월로 전이돼 식품군이 2.4% 감소하며 전체 매출이 3.1% 축소됐다.

백화점은 따뜻한 날씨로 해외유명브랜드(16.4%)를 제외하고 여성정장(-7.9%), 여성캐주얼(-5.2%), 남성 의류(-5.4%), 아동스포츠(-4.1%) 등 패션 영역에서 매출이 감소하며 전체 매출액은 8.1% 축소됐다.



## 모바일뱅킹, 등록고객 1억명 넘어...하루 5.4조 이용

금융거래 수단 자리매김 확실

모바일뱅킹 등록 고객 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1억명을 넘어섰다. 하루 이용금액도 5조원을 돌파했다. 스마트폰 대중화 등에 힘입어 모바일뱅킹이 금융거래 수단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한 모습이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18년 중 국내 인터넷뱅킹서비스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은행의 모바일뱅킹 등록 고객 수는 1억607만명으로 1년 전 보다 1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모바일뱅킹을 포함한 전체 인터넷뱅킹 등록 고객수

도 8.5% 증가한 1억4656만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모바일뱅킹의 성장세는 가파르다. 지난해 모바일뱅킹 이용 실적을 보면 하루 평균 7462만건, 5조3435억원의 거래가 이뤄졌다. 각각 전년대비 27.2%, 31.9% 증가한 것이다. 스마트폰 대중화로 모바일뱅킹을 이용하는 고객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의 모바일뱅킹 경쟁력이 강화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인터넷뱅킹 이용실적도 1억1897만건, 52조1557억원으로 전년대비 25.3%, 19.9%의 증가율을 나타냈

다. 세부적으로 조회서비스가 1억852만건으로 25.4% 늘었고 자금이체서비스(1037만1500건)와 대출신청서비스(1만2000건)도 24.4%, 21.4% 증가했다. 이용금액 기준으로도 자금이체 서비스가 일평균 52조98억원으로 전년대비 19.9% 늘었고, 대출신청서비스는 1460억원으로 41.8% 급상승했다.

인터넷뱅킹 이용실적에서 모바일뱅킹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수로는 62.7%였으나 금액 기준으로는 10.2% 정도였다. 주로 모바일뱅킹 이용이 소액 자금이체나 조회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영향이다.



## 임산부 배려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